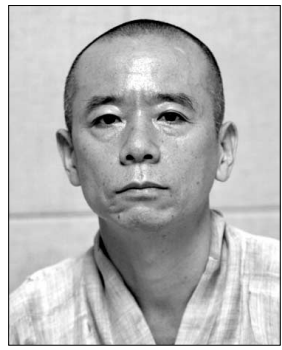


“분별심 끊어야 생사 넘는다”

생사의 두 가지 영상이 나타나 비치지만 본래 생사의 그림자가 없는 ‘옛거울’을 가리키는 ‘옛거울(古鏡)’. 이 옛거울은 영겁 전부터 후까지 항상 변함이 없는 그 광명이 사방세계를 두루 비치어 나고 죽는 것을 똑같이 하거나 초월한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밝디 밝은 ‘옛거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항상 고요히 광명을 발하는 이 옛거울을 밝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찌해야 온갖 분별광상 속을 헤매는 중생의 살림을 청산하고 명경과도 같은 환한 밝음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용대종사와 재산선사의 법맥을 이어 서울의 임제선원에서 참사람 결사를 주도하며 임제종지를 펴고 있는 서울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무명과 번뇌가 돌이아니고 생사고가 바로 청정한 부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한 조사선이야말로 최상승의 길임을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에 밝힌다.



법현 스님

“하루 5분 내삶 돌아보라”



대원 스님

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참선을 하십시오. 5분이라도 내가 살아온 길을 반추하며 쓰레기통에 마음의 지꺼기를 버려보세요.

문: 전쟁 테러 살인 사기... 도처에서 참담한 풍경이 발견됩니다.

답: 어찌하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충족이 행복은 아닙니다.

문: 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답: 나를 찾는 과정인 선을 해야 합니다.

계몽산 산자락에 자리한 화림사는 일년 365일 죽비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보기드문 수행도량이다. 여름과 겨울의 안거철이 아니더라도 화림사 오등선원의 ‘길 없는 길’을 찾아나선 선객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한다.

‘밀전참선요법’ 등 상세히 안내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는 물론 발우와 주장자, 금관가사를 물려받은 오등선원 조실 한암 대원 스님은 선을 체험하고 맛보고 온몸으로 살면서 주장자를 들어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한암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님의 법에는 어떠한 정신이 흐르는가?

스님은 선의 궁극적 목적이 청정자성의 자리를 깨닫는 무아(無我)의 달성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분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등선원 대중들이 이를 널리 밝혀 보이시고 응성 스님과 고암 스님, 대원 스님이 이어받은 조선시대 조계종의 선맥을 제시하고, 큰스님의 법문과 언론매체와의 대담, 나아가 참선 공부법을 돕기 위한 참고의 글들을 함께 엮었다.

특히 대원 스님이 말하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 참구법, 화두참구의 마음자세와 방법 및 병통을 일러주는 ‘밀전참선요법’과 불교와 유학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밝혀준 ‘밀전법통지’는 나란히 길을 찾는 선객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사선이 최상승’ 밝힌 법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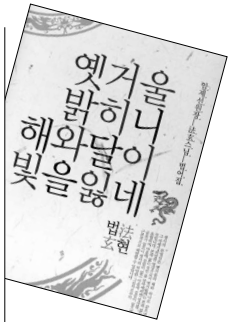
을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에서 가리켜 보인다.

“눈병이 난 사람이 물건을 볼 때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둘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자기의 옛거울을 어찌 밝힐 것인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화두란 그 자체가 중생의 분별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불계 달아오른 뜨거운 쇠덩어리 같은 것이고, 분별심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지혜의 보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기만 하면 천만 가지 차별적인 현상들과 진리의 큰 바다가 본래 돌이 아님을 터득하여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광명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것.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과 온갖 분별심을 끊어버리는 지혜의 보검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법현 스님의 선법 문집은 누구에게나 권할 만하다.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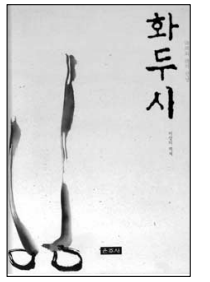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慧眼)을 열다
한암 대원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3000원

화두와 시의 만남

화두시

이상미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일체의 사랑분별을 여의도록 하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으로, 곧바로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수단인 ‘화두(話頭)’.

염송시라고도 하는 화두시는 화두를 재료로 삼아 지은 시를 말한다. 그러나 화두는 그 난해성으로 인해 수행자 스스로 뜻을 깨닫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안집인 <선문염송>을 펴낸 무의자 진각국사 해심(1178-1234)은 간화일문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천명한다. 스님은 역대 조사들이 미미 깨달음의 길로 알려진 화두를 짧은 시 형식에 담아 누구나 스스로 마음을 터득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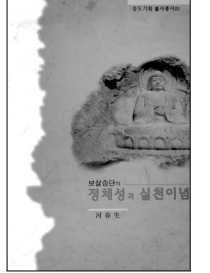
이 책에는 권상로 스님의 <진각국사어록보유>를 저본으로 화두의 원문과 염송시를 번역 해설하고, 선시를 이해하는 기본지식도 설명해준다. 또 <선문염송>에 실린 화두 전문을 실었으며, 무의자 스님의 염송시에 대한 문학적 선적 배경 및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인 이상미씨는 현재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성신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 <무의자의 선시 연구> <오언당음>(공저) 등이 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는?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

하춘생 지음 | 엔터담 | 1만원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재조명을 통해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불교전문 출판편집기획사인 中道 기획(대표 신원식)이 창립 첫 작품으로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을 출간했다.

동방불교대학 하춘생 교학처장이 집필한 이 책은 광복이후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대승불교교단의 궁극적 지향점을 조망함으로써 보살승단의 정체성 확립과 실천이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제 1부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교훈’에서 광복직후 한국불교 교단현황과 교단정화 및 근규의 실상, 교단분열, 현대불교교단사의 성격과 교훈 등을 다룬다.

제 2부 ‘태고종풍과 보살불교사상’은 태고 보우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보살승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실과제와 문제인식을 보는 시각 등을 소개한다.

제3부 ‘보살승단의 실천이념: 자리이타’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계를 비롯하여 초기-부파시대에 나타난 자리이타사상과 반야경·유마경·법화경·화엄경등 대승경전에 보이는 보살사상을 조망한다. 중도기획(02) 2278-2240

yosiamun.com 추천도서

- 반야의 종소리
- 넉넉한 마음으로
- 선 수행의 길잡이
- 소동과
- 절수행일문

도피안사, 권덕 스님, 1만5000원
말암, 경산 스님, 1만4000원
효림, 일타 스님, 6000원
김영사, 스야후이 외 공저, 1만2000원
조계종출판사, 불학연구소,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15

화엄사상, 존재론적 분석

화엄의 세계, 그 원용무애의 존재론적인 구조 최경호 지음 | 경서원 | 3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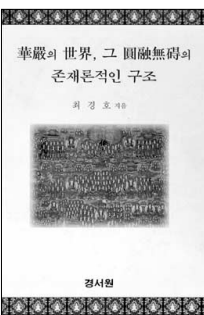
최경호의 책 <화엄의 세계, 그 원용무애의 존재론적인 구조>는 화엄사상의 핵심이며 어떤 사상이나 편견에 걸림 없이 이(理)와 사(事)가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원용무애(圓融無碍)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세상 삼라만상의 실상이 원래

원용무애하다면 교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삼라만상이 원용무애한 것은 맞지만 꼭 연기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도 그 원

용무애함이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불교가 연기의 법칙이기 이전에 이 세상 삼라만상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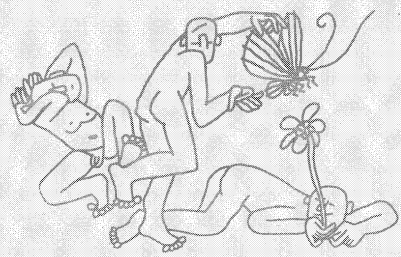
이 책의 제1부는 원용무애의 화엄의 세계를 제시하고, 파헤친다. 저자는 하나되어 있음의 존재가 화엄의 세계가 성립하는 바탕이며, 절대현실이 화엄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 또 상생과 해인삼매, 근본적 경험의 세계인 화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초발심이라고 설명한다. 제2부는 직원심성종(直顯心性宗, 곧바로 마음의 바탕을 드러내는 종파)으로서의 화엄선을 규명한다. 저자가 선(禪)을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주요내용은 ‘무념에 관한 고찰’ ‘신화의 하택종의 본지에 관한 고찰’ ‘마조의 홍주종에 대한 비판’ ‘평상심에 대한 새로운 정립’ ‘직지인심의 선으로서의 화엄선’ 등이 있다. 최경호씨는 서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상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역서로 <존재에서 규명한 선> <현상학적 운동> <신체의 현상학>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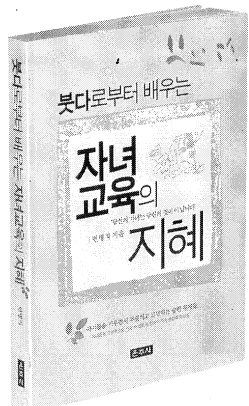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들여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인 일관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간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민병직 지음 | 국판 | 288쪽 | 9,800원 www.buddhabook.co.kr

* 모든 불자 가정에 한 권씩! 선물용 ·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은주사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기

원나시리 지음, 범라 스님 옮김 ①② 전2권
국판양장 1각 702, 710쪽 | 각 28,000원



달마선

달마선은 선종의 뿌리이고 근본이며 정통선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달마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가경』과 초기 선종 어록들을 근거로 선종의 근본을 찾아가고 있는 책으로, 선종의 주요 개념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의 근본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박건주 지 | 국판양장 | 27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926-8362